

2022년도 문화재위원회

제4차 세계유산분과 위원회 회의록

- ▣ 회의일시 : 2022. 7. 14. (목), 14:00~16:20
-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 출석위원 : 9명
-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문 화 재 위 원 회

공지사항 및 투표안내

1.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위원 또는 배우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였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그 밖에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며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회의내용은 기록·녹취되며 회의 결과는 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9조 및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에 따라 의결 방식은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야 하며, 과반수의 찬성에 따라 의결됨을 알려드립니다.

목 차

【심의사항】

1	「한양도성」 (신청명 : 서울의 옛 수도성곽과 방위체계) 유네스코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 선정	3
---	---	---

【보고사항】

1	「양주 회암사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록 경과 보고	23
2	「경주역사유적지구」 내 황룡사지 남쪽광장 정비 경과 및 계획 보고	25

심 의 사 항

1. 「한양도성」 유네스코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 선정

가. 제안사항

「한양도성」(신청명 : 서울의 옛 수도성곽과 방위체계_한양도성, 북한산성, 연흥대성)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 선정에 대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특별시에서 「한양도성」 (신청명 <서울의 옛 수도성곽과 방위체계 : 한양도성, 북한산성, 연흥대성 The Old Capital Fortification and Defensive System of Seoul : *Hanyangdoseong, Bukhansanseong, Yeonyungdaeseong*>)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으로 신청하였음
- 본 위원회 2020년 제2차 회의(2022.2.18.)에서 “보류”됨에 따라, 우선등재목록으로 선정할지 여부를 재심의하고자 함

※ 참고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예규) 제9조

① 문화재청장은 세계유산 잠정목록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유산을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등재목록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등재신청 추진체계 및 등재신청서 작성을 위한 연구진의 구성
2. 유산의 경계 및 완충구역이 표시된 지도 및 도면
3. 제3조(세계유산 등재기준)의 규정에 의한 등재기준 충족을 입증하는 연구결과 및 계획
4. 보존 관리 계획

다. 등재추진 경과

- 2012.11월 : 잠정목록 등재
- 2014.11.4. : 2016년도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제출대상 선정
(2014년도 본 위원회 제2차 회의)
- 2016.1월 : 세계유산 등재신청서 제출
- 2016.3월 ~ 2017.2월 : 현지조사, 추가자료 제출, 이코모스 패널회의 및 당사국 면담
- 2017.3.9. : 이코모스 제2차 패널회의 결과 ‘등재불가(Not be Inscribed)’ 권고 결정

- 등재기준 iii, iv에 대해 유산관리 전통과 건축유형 면에서 전 인류 역사상 중요한 단계를 보여주지 못하며,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증명하지 못함
- 이코모스 제1차 패널에서 권고한 유산구역 확대를 수용하였으나, 여전히 완전성을 입증하고 있지는 못함 (사적지정구역+유실구역을 모두 연결 필요)

- 2017.3.21. : 등재신청 철회 ⇒ 이후 “잠정목록” 지위 유지 중
- 2019.1.24. : 우선등재목록 선정심의 / “보류” (한양도성 단독 신청)

- ※ 다음 내용을 보완한 후, '19년도 하반기 이후 재심의함
- 1) 1차 등재 신청 과정에서의 심사 지적사항
 - 2) 성곽 현황, 축성기술 등 기초조사
 - 3) 국내외 유사유산 비교연구
 - 4) OUV 명확화
 - 5) 문화재위원회 및 전문가 검토 의견

- 2020.2.18 : 우선등재목록 선정심의 / “보류” (한양도성 단독 신청)

○ 관련 심의사항

- 2018.4.26 : 「북한산성」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선정 심의 / “부결”

※부기사항 : 한양도성과의 연속유산으로 검토가 필요함

○ 한양도성-북한산성-연용대성 서울시-경기도 공동등재 추진 경과

- 2020.11~2021.9 : 북한산성 및 연용대성 유산구성을 위한 기초연구
- 2020.12~2021.8 : 한양도성 연속유산 구성을 통한 등재방안 연구

※ 연구결과 한양도성-북한산성-연용대성 통합등재 권고

- 2021.2 : 서울시-경기도 세계유산 공동등재를 위한 합의 (공문)
- 2021.3~ : 서울시-경기도 세계유산등재추진 협의체 구성 (월1회 실시)
- 2021.11 : 한양도성-북한산성-연용대성 우선등재목록 선정을 위한 연구 착수

○ 유산 구성

연번	유산구성	문화재지정명	비고
1	한양도성	서울 한양도성 (사적)	
2	북한산성	북한산성 (사적)	내부 관련 유적 포함
3	연용대성	홍지문 및 탕춘대성 (서울시 유형문화재)	사적 추진중

라. 우선등재목록 선정 절차 및 방식

- 제출자료 및 프레젠테이션 결과를 토대로 우선등재목록 선정 여부 결정
 - 해당유산의 추진상황과 더불어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증빙하는 신청기준, 완전성, 보호관리 체계 및 등재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해당 유산이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으로 불충분할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4조 및 제9조에 의거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마. 「한양도성」 신청내용(요약)

※서울특별시 작성

1) 추진체계 및 등재신청서 작성을 위한 연구진의 구성

○ **현 등재신청 추진체계**

- 서울시와 경기도는 공동으로 세계유산등재추진 협의체를 구성하고(2022. 3.) 월 1회의 정기적인 협의회를 운영 중

		서울시-경기도 세계유산 등재추진 협의체											
		서울시 문화본부장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						
학술지원		한양도성도감					문화유산과					학술지원	
서울역사박물관 (한양도성연구소 5)		정	보	관	세	정	관	보	활	편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 문화유산팀 4)		
		책	존	리	계	책	리	존	용	찬			
		팀	팀	팀	유산	팀	팀	팀	팀	팀			
		10	4	9	산	5	4	4	4	4			
					팀								
					4								

○ **등재신청 연구진**

구분	소속 및 분야	인원
지자체 및 기관 등재신청 전담 연구원	서울시 한양도성도감	4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	4
	고양시 문화예술과	1
등재신청서 작성 연구진	책임연구원, OUV발굴 및 보호관리, 유산특성 및 역사, 비교연구, 세계유산제도 등	7
계		16

○ **관련 위원회**

- 한양도성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20명)
- 한양도성 자문위원회(12명)

- 한양도성 행정협의회(17명)

※이번 한양도성-북한산성-연흥대성 우선등재목록 심의 통과시 서울시-경기도 통합위원회 구성 예정

○ 향후 등재신청 추진 조직 단계

신청단계	추진조직	조직구성	추진방식
우선등재	세계유산 등재추진협의체	서울시 한양도성도감 + 경기도 문화유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및 경기도간 협의·조정 · 세계유산 등재에 필요한 사업을 공동 혹은 병행 진행 · 문화재관리는 현행 유지
신청후보 - 유네스코평가	세계유산 등재추진단	서울시 혹은 경기도 산하 임시추진단(사무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관리계획수립 · 통합 등재추진 및 자문위원회 운영
세계유산등재 이후	세계유산센터	서울시, 경기도 공동출자 재단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네스코 권고사항, 정기보고서 작성 · 세계유산 관리기준 제시, 모니터링 · 홍보 및 교육 등

○ 향후 관련사업 추진 계획

구분	'22	'23	'24	'25	'26	'27
추진 단계	우선등재	신청후보 및 예비평가신청	예비평가 결과 및 신청대상선정	신청서 초안제출	신청서제출 및 서면평가 현지실사	등재결정
등재 신청 연구	서울시 신청후보 연구착수	예비평가 및 추가자료	예비평가 결과반영 및 최종신청서	신청서 완성 및 영문번역	현지실사 및 1차 추가자료	2차 추가자료
첨부 자료	경기도	통합보호 관리 계획	영상물, 도면집, 사진집, 기록물 등 첨부자료 제작			
학술 회의 및 홍보	공동	OUV방향설 정워크숍	국제전문가 초청 워크숍(등재신청 검증)		실사대비 예비실사	
		국제심포지엄 (국제 네트워크 구축)			이 코 모 스 (ICOFORT) 국제회의 유치	
		세계유산위원회참가(WHC)				
모니 터링	공동	탐방객 이용현황조사, 안전진단 및 모니터링 등				
유적 정비	서울시	탕춘대성 발굴조사 (1차) 및 사적승격	탕춘대성 발굴조사 (2차)	탕춘대성 3D 정밀실측		
	경기도	행궁지정비 (7차)	행궁지정비 (8차) 및 훈련도감 발굴조사	행궁지정비 완료(9차) 및 금위영 발굴조사	어영청 발굴조사	

2) 유산의 경계 및 완충구역이 표시된 지도 및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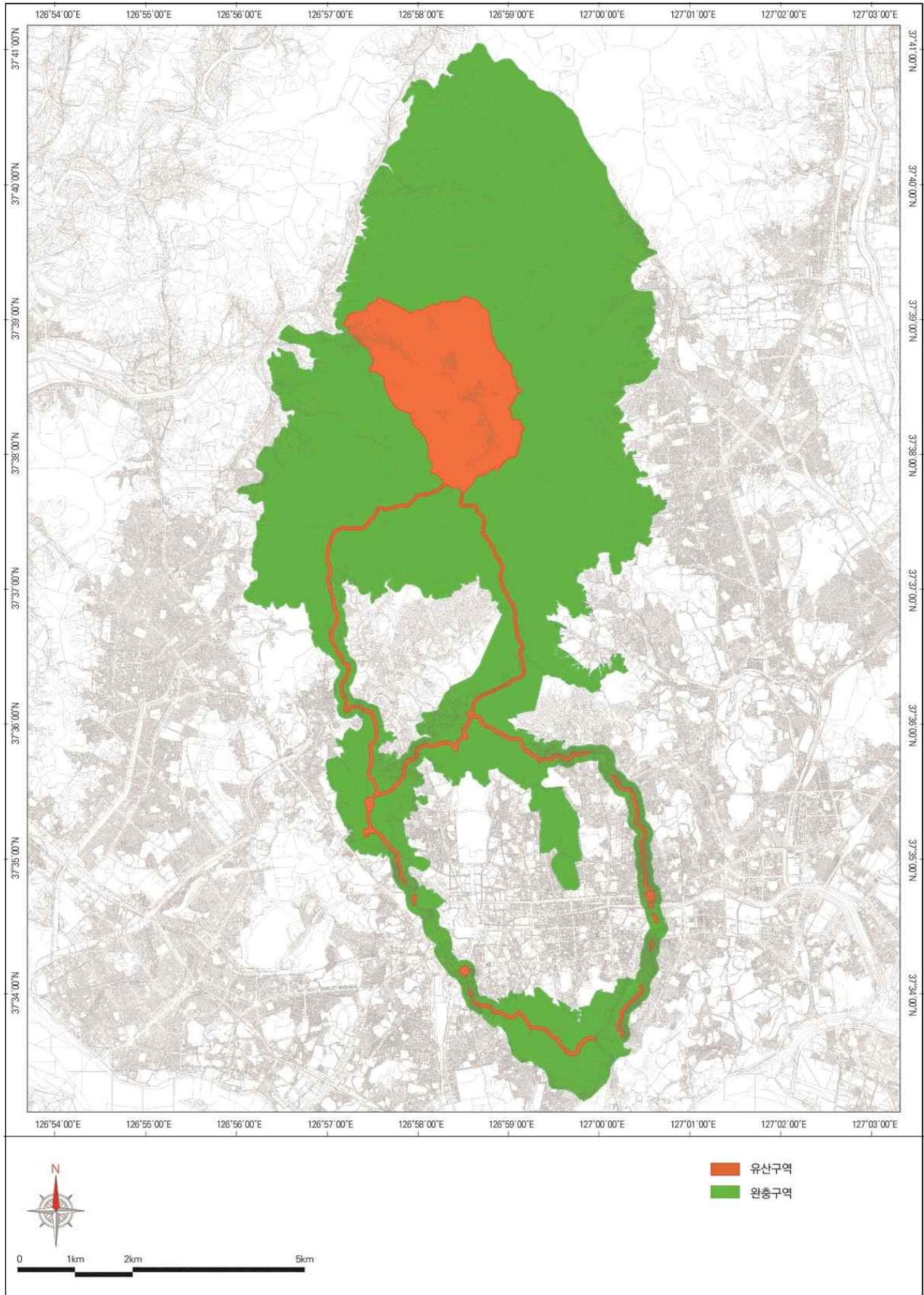
○ 유산구역 및 완충구역 경계 설정

- 설정 방향 : 유산구역은 3개의 성곽의 전체 형태를 드러내며, 완충구역은 산지 전체를 드러나게 설정 함
- 유산구역은 「서울 한양도성」(사적), 「북한산성」(사적), 홍지문 및 탕춘대성(서울시 유형문화재)의 문화재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서울 백악산 일원」(명승), 국립공원 지역을 포함하여 설정
- 완충구역은 각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과 국립공원 및 도시공원 지역으로 설정

<유산구역 및 완충구역>

일련 번호	연속 유산명	구간	지역/지구	중앙점좌표	신청유산 구성요소의 유산구역면적(ha)	신청유산의 완충구역면적(ha)
1	한양 도성	백악산 구간	서울시종로구, 서대문구, 성북구	E126°58'35" N37°59'30"	32.84	5,463.00
		낙산 구간	서울시성북구, 종로구	N37°58'81" E127°00'31"	9.13	
		홍인지문	서울시 종로구	N37°34'04" E127°00'39"	0.5	
		이간수문	서울시 종로구	N37°34'04" E127°00'39"	0.48	
		광희문	서울시 중구	N37°33'50" E127°00'36"	3.96	
		목멱산구간	서울시 중구, 용산구	N37°33'05" E126°59'24"	12.65	
		승례문	서울시 중구	N37°55'98" E126°97'49"	1.93	
		인왕산구간	서울시 종로구, 서대문구	N37°34'14" E126°57'58"	0.57	
2	북한 산성	-	경기도 고양시, 서울시 종로구, 성북구, 강북구, 은평구	N37°38'26" E126°58'40"	457.14	
3	연용 대성	서성	서울시 종로구, 서대문구, 은평구, 성북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N37°36'18" E126°57'14"	9.95	
		동성	서울시 종로구, 성북구	N37°61'96" E126°98'27"	9.8	
전체면적(총계)					538.95	5,463.00

<유산구역과 완충구역 지도>



3) 등재기준 충족을 입증하는 연구결과 및 계획

가) 등재기준

○ 신청 등재기준 : 기준(iii), 기준(iv), 기준(vi)

- 기준(iii) : 현존하거나 사라진 문화적 전통이나 문명의 유일한 또는 적어도 독보적인 증거여야 한다.

신청유산은 16-17세기 전쟁과 국방전략의 변화를 반영하여 도성과 산성을 연결성으로 통합한 대규모 방어시설로서, 전쟁시 국왕과 백성이 함께 도성을 사수하는 여민공수의 이념을 구현한 독창적인 수도방위체계를 증거한다.

- 기준(iv) : 인류 역사에서 중요한 단계를 예증하는 건물유형, 건축이나 기술의 총체 혹은 경관의 탁월한 사례여야 한다.

신청유산은 도시성곽-연결성곽-배후산성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3원 고리 모양의 성곽유형으로, 화약병기에 대응하기 위해 산악지형을 활용한 18세기 한반도 수도성곽의 독특한 형태와 발달 단계를 보여준다.

- 기준(vi) : 사건이나 살아있는 전통, 사상이나 신조, 뛰어난 보편성이 탁월한 예술 및 문학 작품과 직접 또는 가시적으로 연관되어야 한다.

신청유산은 수도성곽의 축성과 지맥의 관리가 일체화된 사례로서, 수도의 진산을 신성시하는 한국인들의 산악숭배 관념을 반영하는 한반도 수도성곽의 축성과 관리체계의 독특한 면모를 보여준다.

나) 유산에 대한 설명

○ 제시한 유산 명칭 :

서울의 옛 수도성곽과 방어체계 : 한양도성, 북한산성, 연흥대성
(The Old Capital Fortification and Defensive System of Seoul:
Hanyangdoseong, Bukhansanseong, Yeonyungdaeseong)

○ 유산 구성

- 신청유산은 서울 도심 한복판과 서울이 내려다보이는 배후의 산악지형에 위치한 한양도성, 북한산성, 연흥대성 3개의 성곽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산성 내부의 행궁지, 삼군영유영지(훈련도감, 금위영, 어영청), 창고시설, 승영사찰, 관성소 지 등 내부 유적이 포함된다.

○ 유산개요

- 신청유산은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도심부와 그 배후의 산악지역인 경기도 고양시에 걸쳐 분포하는 도성(한양도성), 배후산성(북한산성), 연결성곽(연용대성) 3개의 성곽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3개의 성곽은 도시를 에워싸는 평지와 구릉지, 산의 능선을 따라 연결되며 전체 길이 40.1km에 이르는 대규모 성곽군이다.
- 신청유산은 16-17세기의 대규모 전쟁과 국방전략의 변화를 반영하여 18세기에 구축된 수도방어시설이다. 전 세계의 성곽들은 15세기 이후 화약병기의 확산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했다. 유럽은 성형요새(Star fort)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성곽건설과 성벽구조의 변화를 통해 성벽의 방어력을 강화하였고, 동아시아에서는 넓고 깊은 해자를 조성하거나 성벽에 화포를 배치하기 위해 포루와 총안을 설치하는 등 성곽시설을 갖추어 나갔다. 신청유산은 동아시아 성곽기술을 바탕으로 도성의 성벽과 여장을 강화하는 동시에 배후의 높은 산악과 자연지형의 능선을 이용해 방어선을 구축하는 독창적인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는 동아시아 성곽축성기술과 한국의 전통적인 성곽건축의 결합을 보여준다.
- 18세기 전반 수도의 자체 방어력을 강화하기 위해 종래의 도성을 개축하고 그로부터 약 5km 떨어진 산지에 방어형 산성을 축성한 뒤 도성과 산성을 잇는 연결성곽을 건설함으로써 3원 고리 구조의 성곽이 완성됐다. 이렇게 완성된 서울의 수도성곽은 '18세기 도성방위의 완결체'라고 할 수 있다. 성곽 공사를 마무리한 뒤 '도성연용북한합도(都城鍊戎北漢合圖)'라는 국가지도를 별도로 편찬한 것은 새롭게 구축된 수도방어체계에 대한 당대인들의 인식을 잘 보여준다.
- 3원 고리 형태로 구축된 수도성곽은 전시를 대비하여 운영되었다. 평시에 한양도성은 왕의 처소인 궁궐, 제사시설인 종묘와 사직, 행정관청, 그리고 도성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였고, 북한산성은 위급시 방어를 위한 산성으로 군영과 산성 내부에 위치한 승영 사찰의 승려들이 관리하였다. 연용대성은 연결성곽으로 도성의 서북쪽을 방어하는 한편 성곽 내부의 곡식창고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러나 전시에는 도성이 1차 방어선으로 적을 막는 역할을 하고 왕과 백성이 함께 연결성곽인 연용대성을 통해 배후산성으로 이동하여 방어하는 여민공수의 전략을 마련하였다. 신청유산은 왕과 백성 전체가 배후산성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대규모의 성곽을 서로 연결함으로써 여민공수의 이념을 수도성곽에 구현한 독특한 사례이다. 이 때 도성민과 군영이 담당구역을 맡아 지키도록 하였다. 전시를 대비한 방어체계의 운영을 위해 북한산성 내부에는 행궁, 3군영의 유영지, 승영사찰, 전시 물자를 보관하는 창고 등을 마련하고 관리하였다.
- 신청유산은 20세기 초 식민지시기 도시확장으로 인한 훼손,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의 피해를 겪었으나 1970년대부터 점차 복원을 통해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었다. 현재 전체 길이 40.1km중 36km를 확인할 수 있다. 대한민국 문화재청, 서울시, 경기도 고양시는 신청유산을 효과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법제도와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신청유산과 그 주변 지역의 보존관리 및 지원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다) 보존 관리 계획

○ 법적제도

- 신청유산은 대한민국 「문화재보호법」과 「문화재보호조례」과 더불어 도시건축관련 법률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법」, 「산림관리법」, 「공원법」, 「산림법」 등에 따라 보호·관리되고 있다.
- 유산구역은 「서울 한양도성」(사적), 「북한산성」(사적), 홍지문 및 탕춘대성(서울시 유형문화재)을 중심 설정되었으며, 일부는 「서울 백악산 일원」(명승), 국립공원 지역으로 강력한 법적 보호를 받고 있다.
- 완충구역은 모두 각 문화재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국립공원, 도시공원지역에 포함되어 있다.
- 완충구역을 포함해 신청유산 주변 도시 및 주거지역은 도시계획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경관법에 따라 자연녹지지역, 경관지구, 고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건축물의 용도와 높이 등을 규제받는다.
- 산지 및 공원지역은 자연공원법, 도시공원법, 산지관리법, 산림법 등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 보호관리체계 구축

- 신청유산의 보호·관리의 주체는 대한민국 문화재청이며 신청유산이 소재한 서울시·경기도·고양시는 세계유산 등재 업무와 통합보존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서울시는 2012년 전담조직인 한양도성도감과를 설치하였고, 2013년 한양도성 보존·관리 및 활용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6년 이코모스 현지 실사에서 보호관리체의 우수한 평가를 받은바 있다.
- 경기도, 고양시는 공동으로 북한산성 보존관리사업을 이끌고 있으며, 2011년 경기문화재단에 북한산성문화사업팀을 신설하였으며, 2015년에는 북한산성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였다.
- 서울시와 경기도는 한양도성, 북한산성, 연용대성의 일원화된 통합 보호관리체계 및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연용대성의 사적승격, 북한산성 내부 유적의 조사연구 및 문화재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 보존상태

- 한양도성은 현재 서울의 도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울의 도시화 과정에서 성곽 주변으로 도로 및 시설물이 건설되면서 일부가 훼손되었다. 현재 한양도성은 전체 둘레 18.6km 중 14.5km가 지상부에 남아있으며 모두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지하유적 잔존구간은 지속적으로 발굴 작업을 하고 있으며 발견된 유적은 문화재로 지정하고 있다.

- 북한산성은 1958년 대서문의 복원을 시작으로 보수 정비를 시행해 오고 있다. 북한산성에는 총 14개의 성문(암문 포함)과 1개의 수문이 있다. 성곽시설로는 장대지와 치성과 성랑 등이 있으며 유산구역에 포함되어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보존·관리되고 있다.
- 북한산성 내부 관련 유적으로는 행궁지, 3군영 유영지(훈련도감, 금위영, 어영청), 창고지(경리청 상창지, 중창지, 하창지, 호조창지)가 확인되고 있다. 승영사찰지 등이 있다. 이중 행궁지는 발굴이 완료되고 정비중에 있으며, 나머지 유적의 발굴조사와 정비 계획이 연차별로 수립되어 있다.
- 연용대성은 1920년대 초의 홍수로 성곽 일부가 유실되었으나 1970년대 기존의 잔존 유구를 기초로 홍지문, 오간수문, 좌우 성벽 일부가 복원되었다. 성벽의 나머지 구간은 여장을 복원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는데, 축성당시의 원형을 파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 유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 신청유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발 압력, 환경적 압력, 자연재해 및 재난, 방문객 및 관광산업의 압력, 유산경계 내 거주하는 주민 등이 유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요인이다.
- 문화재청과 서울시·경기도·고양시는 신청유산 주변에서 진행되고 있는 개발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신청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압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신청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며 거주민의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주거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석재로 된 성벽, 성문과 수문, 성곽시설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압력 요인으로는 식생에 의한 압력과 풍화에 의한 압력, 그리고 구조적 압력 등이 있다. 목재 건축물인 문루에 대한 환경적 압력은 자연풍화에 따른 건축 재료의 노후화, 부식, 흰개미, 재선충과 같은 병충해 피해 등이 있다. 문화재청과 서울시·경기도·고양시는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즉시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 자연재해와 인공재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서울종합방재센터를 중심으로 총체적 방재체계를 구축되어 있다. 서울종합방재센터는 신청유산과 관련된 재난정보를 축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각종 재난사고는 119를 통해 신고를 받고 있다.
- 신청유산은 자연녹지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관광산업으로 인한 위협은 탐방하는 방문객이 많아 계절별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방문객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접근하고 있어서 안전보장과 신청유산의 보존을 목적으로 탐방로를 조성하고 나무데크를 설치하여 방문객의 동선(이동 경로)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상시 방문객의 추이를 모니터링 하기 위해 구간별로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방문객의 안전 및 각종 피해를 예방하고 있다.

○ 모니터링

- 서울시·경기도·고양시는 신청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와 '진정성 및 완전성'을 보호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청유산을 지속적이며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 성벽의 정규적인 모니터링은 통해 한 달에 한 번 주기로 이루어진다. 모니터링 활동에는 서울시·경기도·고양시와 자치구, 문화재지킴이, 성곽마을 주민도 참여한다. 정기 모니터링에서는 성벽, 문루, 돌레길에 대한 일반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비정기적으로는 계절에 따라 석재의 기울기와 불균형을 정밀 조사하고 침수 정도, 석재와 기와의 결빙상태 식생의 변화를 관찰하여 조치한다.
- 특수 상황인 경우 전문가 모니터링이 이루어진다. 전문가는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문제 상황을 검토하고 서울시·경기도·고양시 문화재위원회와 국가 문화재위원회에게 보고하면 이에 대한 대응 및 처리가 결정된다.
- 한양도성은 2016년부터 한양도성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수도방위사령부, 각 구청 등과 실시간 폐쇄회로(CCTV) 관제망을 구축하고 있다. 북한산성 및 연유대성도 국립공원 관리공단과 통합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 소유권

- 신청유산은 소유권은 대부분 국공유지가 차지한다.
- 유산구역 중 사유지 분포를 보면 한양도성 11.82%, 연유대성 12.86%, 북한산성 9.49%이며, 모두 문화재보호구역과 국립공원내에 위치한다. 이중 연유대성의 사유지는 학교법인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한양도성 인접한 사유지는 주거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또한 관리동선, 문화재관리, 환경개선 등 다양한 목적과 경로로 장기적인 사유지 매입을 병행하고 있다.
- 완충구역 중 사유지는 한양도성 21.88%, 연유대성 18.77%, 북한산성 3.8%이며, 문화재보호법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과 그밖에 국립공원, 도시공원에 해당된다.
- 유산구역과 완충구역은 문화재보호법, 국립공원, 녹지법 등 기존의 법령과 지구설정을 활용하고 있으며, 새로운 규제를 두고 있지 않아 재산권 행사의 추가적인 제약은 없다. 또한 주변 노후 주택은 주거개선 사업을 통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

○ 기타사업

- 유산의 보호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한양도성연구소 및 북한산성문화사업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은 신청유산의 진정성과 완전성 연구 각종 고증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신청유산의 보존 활용을 위해 공유체험프로그램, 주민교육프로그램, 해설사 양성교육, 교사학생연수와 같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중이다.
- 서울시·경기도·고양시는 신문·방송 등 언론 미디어를 통해 지속적으로 신청유산을 홍보하고 있다. 최근의 발굴성과, 유산관리사업, 국내외 학술대회 등 학술 연구활동, 시민네트워크 활동 등을 소개하고 있다.

4) 기존 등재신청 분석 및 신청내용 보완

○ 유산구성

기존내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성 내부를 포함하지 못하는 한양도성 단독의 성곽유산으로 등재신청은 차별화된 OUV 발굴에 한계 • 도심내 8개로 단절된 한양도성의 완전성 부족 지적
보완내용 및 해결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양도성 연속유산 구성 방안 연구를 통해 유산확장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속된 성곽유산(북한산성, 연용대성)과의 통합등재 권고 - 도성 내부 유산(궁궐, 종묘, 사직 등) 연계는 진정성 및 시기적 문제있음 • 한양도성-북한산성-연용대성 3개의 연속유산 구성과 북한산성 내부 관련 유적의 포함으로 경쟁력 있는 OUV발굴 가능

○ OUV 명확화

기존내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등재기준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등재기준 (ii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성곽 지속적인 유산관리의 전통 ('16) - 6백여년간 동아시아 주요 격변 사건과 서울의 영향을 증거 ('19) - 중앙집권적 국가동원체계와 독보적인 성곽 관리시스템의 증거 ('20) <p>등재기준 (iv)</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형적 조건에 순응한 축성 기술 ('16) - 유교이념과 풍수관념을 바탕으로 건설된 수도성곽의 탁월한 사례('19) - 산성과 도성이 단일의 선형으로 일체화된 사례('20) <p>등재기준 (v)</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리형태학적으로 수도를 위한 최상의 입지 선택 사례 </div> • 세계보편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도시성곽 유형인 한양도성만의 OUV는 비교 연구를 통한 탁월함 입증 부족 • 기존 동아시아의 유산(궁궐, 제사시설 등)의 유교, 풍수 등의 OUV와 차별 부족
------------	---

보완내용 및 해결방안	<p>등재기준 (ii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왕과 백성이 함께 도성을 사수하는 여민공수 이념이 구현된 성곽구조와 수도방위체계 <p>등재기준 (iv)</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성곽-연결성곽-배후산성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3원고리 형태의 대규모 성곽유산 및 한반도 수도성곽의 발달 단계 <p>등재기준 (v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곽과 지맥관리, 산악송배사상이 일체화된 독특한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성과 대규모 배후산성이 지형에 따라 일체화된 성곽유형과 그 방어체계는 세계적으로 또한 동아시아에서도 독창적인 사례임 • 내부의 행궁, 군영, 창고 등을 포함하는 북한산성과의 통합은 전시의 수도방어를 위한 평시의 경영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

○ 완전성

기존내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심내 8개로 단절된 한양도성의 완전성 부족 지적 ('16) • 완전성이 OUV (도시성곽의 관리의 지속, 도시의 경계로 기능 등)와 불일치
보완내용 및 해결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양도성-북한산성-연용대성의 통합구성은 한양도성 완전성 문제를 보완 가능 (3개 성곽은 전체길이 40.1km이고 이중 36km가 현존) • 연용대성의 자연지형 및 보축구간도 유산구역으로 포함하여 전체 지형과 3원고리의 전체 형태를 드러냄 • 성곽과 행궁, 군영, 창고 등 유산구성과 관련유적의 포함은 방어체제와 운영을 입증하기에 충분 • 서울이라는 세계적인 대도시 도심 한가운데 현존하는 대표사례, 서울시의 완전성 보안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강조

○ 비교분석

기존내용 및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시된 OUV와 비교연구의 불일치 - 건식편축공법, 도시성벽관리의 지속, 지형의 활용 등의 OUV를 비교분석을 통한 차별성 입증 부족
보완내용 및 해결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수년간 축적된 한양도성과 비교분석 자료와 남한산성, 북한산성 등의 자료를 포괄하는 확보 • OUV를 드러내는 명확한 비교속성을 도출하고, 속성분석을 통해 OUV와의 일치된 비교분석 결과 도출 • 비교분석 결과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유산과 잠정목록 가운데 신청유산의 위치를 분석 - 특히 15~17세기 도시성장과 화약병기의 발전이라는 세계 역사의 보편성 가운데 신청유산의 독창적인 변화와 고유 속성을 도출함 - 동아시아 문화권 내에서도 독창적인 수도성곽 유형으로, 한반도 수도성곽의 중요한 발전단계를 보여줌을 확인함 </div>

○ 기타 (진정성 및 보호관리)

- '16년 이코모스 현지 실사에서 한양도성의 진정성은 충분히 설명 가능하였음
- 한양도성의 보호관리는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체계를 구축, 운영되어 있음
- 한양도성의 보호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를 동등하게 북한산성 및 연흥대성 통합 적용함

바. 전문가 검토 의견

- 회의일시 : 2022.○.○.(월) 14:00, ○○○○○○ 소회의실
- 검토자 : ○○○(○○○ 실장), ○○○(○○○분과 전문위원), ○○○(○○○ 명예교수)
- 검토의견(요약)

[검토의견(종합)]

- 한양도성, 북한산성, 연흥대성의 성격을 Fortification 이나 Defensive System 이라는 군사적 기능에 초점을 두는 것의 적절성에 대해 보다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음
- 유산의 설명, 등재기준 서술의 관념적·추상적 표현들을 구체적·사실적 표현으로 수정 필요
 - 성곽, 성벽, 산성, 도성, 방어, 방비, 방어체제, 방위체계 등 관련된 용어의 정의를 일관성 있고 분명하게 서술해야 함
- 우선등재목록 심의 준비단계부터 통합 (연구)조직을 구성하여, 유산의 성격과 보존관리 대책 마련에 협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 한양도성에서 현재 단절된 일부 구간의 완전성을 설명할 수 있는 중장기적 계획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설명]

- 도성과 그 주변의 방어시설을 발전시켜 산성 형태를 더하게 된 것이 18세기 중엽에 완성된 최종 형식으로서 한양도성·북한산성·연흥대성을 부각시키려 한 취지는 이해되나 서술의 설득력은 미약함
- 전통 신앙인 산신 숭배가 언급되었는데, 목덕신사와 백악 등 국가의 제사 체제, 풍수사상, 산천비보사상 등의 무형적 요소가 유산에 실제적으로 구현된 부분에 대한 서술이 부족하며, 유교정치사상에 입각한 왕조가 북한산성의 비보를 위해 불교사찰을 용납하고 활용했던 사실에 대한 서술 보완 필요
- 한양도성-북한산성-연흥대성으로 연결되는 유산을 유기적으로 연결된 복합체로 간주하여 서술

- 현재의 서술은 3개 단위 설명을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나, 연속유산으로서 포괄적인 설명과 개별 구성요소에 대한 설명 부분이 구별되어야 할 것이며, 연속유산 등재신청서 작성의 형식에 맞도록 보완이 필요
- '서울의 옛 수도성곽'보다 '한국의 옛 수도 서울 성곽'이 보다 적합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 제시한 구성요소들은 방위체계이기보다 방어시설에 가까움
 - '방위체계'로 본다면 수도 외곽의 4개 유수부(留守府)가 모두 행궁을 가진다는 의미에서 이들도 함께 설명되어야 할 것임
- 현재 유산의 제시 순서는 형성 순서이나, 평시 도성을 중심으로 서술할 것인지, 전시를 위한 예비 방어시설이라는 역사적 산물의 거의 마지막 형태로 건설된 산성을 중심으로 서술할 것인지에 따라 논리 구성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임
 - 도성 중심의 서술일 경우 내성인 궁성의 포함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북한 산성 중심의 서술일 경우 산성제도의 발전 과정에 대한 추가 제시가 필요하고, 연용대성의 기능과 관련해서는 산창과 평창의 운영과 관련된 창성 기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수성윤음, 북한지 등 문헌자료, 경계표지의 존재, 과거 관찬기록과 지도, 사찬 문서, 금석문 등을 제시하여 유산의 역사성과 진정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 서양사 부분과 아시아사 부분의 서술은 교과서 수준의 보편성과 통설의 범위 내에서 기술되어야 할 것임

[탁월한 보편적 가치 정당화]

- 등재기준 iv)에서 제시한 도성과 산성의 연결 구조는 이미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에서 있어 왔으며, 산악지형을 활용한 18세기 한반도 수도성곽의 독특한 형태와 발달 단계로 제시한 등재기준 iii) 또한, 유일하거나 독보적인 증거로 보기에에는 보다 많은 검증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등재기준을 복합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각 항목간의 논리적인 연관성도 뚜렷하게 제시되어야 함. 화약병기와 성형요새 화포의 배치를 위한 여장 형식의 변화 등이 국내에 적용된 것이 마치 18세기에 이뤄진 것처럼 오해가 생기지 않아야 함. 신청유산이, 16세기 말에 이뤄진 기술적 성과를 종합하고 전쟁의 경험에서 얻어진 군사기술과 축성법의 변화를 이룩한 유산이라는 내용이 잘 설명될 필요가 있음

[비교연구]

- 비교연구를 통해 유산 속성의 탁월함, 특징, 차별성을 파악하기가 어려움. 지나치게 많은 비교사례가 나열 수준으로 제시되어 있어, 효율성을 저해함
 - 서양성곽과, 동양성곽(특히 일본의 근세성곽)의 유사성을 우선 이해한 후 아성의 개념을 바탕으로 유사한 시기 세계 각지의 간단한 비교 서술이 바람직함

- 역사적, 자연적, 시대적 환경에서 유사성이 떨어지거나 비교하기 어려운 지역의 유산들은 과감히 배제하고, 논문식 서술보다 보고서식 서술 권장
- 특히 기 등재된 남한산성, 수원화성과의 비교연구는 심화하여 제시할 필요
- 도성의 구조(structure)와 관련된 것과 방어 관련 조직(system)으로서의 도성 방어 요소별 설명은 다르므로,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그에 맞는 비교분석의 대상을 선택해야 할 것임. 신청 유산의 기능(function)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

[유산구역/완충구역 설정과 완전성]

- 지도와 관련하여 전문가의 형식 검토가 필요함. 현재 제시한 지도로는 국내법적 보호체계와 유산구역·완충구역의 연관성을 직관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려우며, 등재신청서 규정에 맞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 검토 요망
- 유산 내 멸실구간과, 이전된 구성요소에 대해 설득력있는 추가 설명이 필요하며, 석성 구간, 자연 성벽 구간, 멸실 구간(복원 구간)을 구별하여 제시 필요

[진정성]

- 한양도성 멸실구간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는 점을 제시하고, 도상복원(圖上復原)도 복원의 한 방법이므로, 보존과 원상회복을 위한 노력이 진행된 사실과, 앞으로의 의지와 노력을 부각시키기 바람
- 1970년 이후 보수 복원 사업시 조사, 기록, 설계, 시공 과정에서 원형 고증과 전통기술 적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이 필요함
-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양도성 내외, 북한산성, 연용대성의 고고학적 조사가 현재도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운영시설 가운데 문헌자료와 발굴조사를 통해 위치가 확인된 구역은 유산구역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보호관리계획]

- 유산의 규모와 복잡한 행정 관할 등으로 유산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므로, 일상 관리와 소규모 긴급 보수, 모니터링의 기능을 갖는 지자체 담당 기구간 협력 대책 마련이 필요함
- 국가-지자체-민간, 군부대 등 유산 주변에 소재한 이해당사자들의 협력에 기반한 보존관리계획 제시 필요
- 유산구역 내외곽 사유지에 대한 개발 등의 압력 동향도 반드시 언급해야 함
- 도심(및 도시 근교)에 위치하여 시민들의 휴게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현 상황과 관련된 탐방객 안전 관련 시설, 휴식년제 등, 등재 추진 및 보존관리에 대한 주민 의식 등에 대한 자료 보완이 필요함. CCTV 등 유산 관리 및 보호 시설이 유산의 경관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지 고민 필요

사. 소관 부서 검토 의견

- 「한양도성」 단독으로 우선등재목록 선정 심의시 보류 2회('19.1.24., '20.2.18.) 의결된 바 있으며, 이번 등재신청서에서는 유산의 구성요소를 확장하여 북한 산성, 연용대성을 연계한 OUV를 제시하였음
- 금번 신청서에 대해, 전문가들은 ① 신청서에서 제시한 OUV와 구성요소의 연결성, 세부 용어 등의 서술 방식이 다소 부족하고 ② 비교연구의 대상 선정 및 분석 방법이 효과적이지 않으며 ③ 평시 도성을 중심으로 서술할 것인지, 전시를 위한 예비 방어시설이라는 역사적 산물의 거의 마지막 형태로 건설된 산성을 중심으로 서술할 것인지에 따라 논리 구성 방법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④ 유산구역을 소관하는 지자체간 협력 체제가 조속히 구축되어야 효과적인 등재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 등을 피력하였음
- 개정된 문화재청 예규(문화재청 예규 제228호, 「세계유산 등재신청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우선등재목록 - 등재신청후보 - 등재신청대상>의 각 심의 단계 별로 집필진, 전문가, 문화재청의 검토를 통해 신청서의 보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고려하면서, '우선등재목록'의 단계에 적합한 검토가 필요함
 - △'우선등재목록'에 선정된 유산을 관리하는 지자체는 '등재신청후보' 선정을 문화재청에 신청할 수 있으며 △'등재신청후보'로 선정된 유산에 대해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소위원회)는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를 포함하는 2차례 보완을 실시하고 △이후, '등재신청대상' 선정을 심의하며 △이 때, 선정되지 않은 유산의 '등재신청후보' 지위 유지 여부 또한 심의함

아. 의결사항

- 보류함
 - 적극적으로 구성요소의 변경을 추진한 지자체의 노력은 의미가 있음
 - 다만, 구성요소의 변경에 따라 OUV, 비교연구 등 전반적으로 보다 정합성 있는 서술을 권고함

보 고 사 항

1. 「양주 회암사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록 경과 보고

가. 보고 사항

「양주 회암사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록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립니다.

나. 보고 사유

- 경기도 양주시에 소재한 「양주 회암사지」 잠정목록 선정 심의 경과는 다음과 같음
 - 2018.4월 : 잠정목록 선정 심의 결과 <부결>
 - 2020.1월 : 잠정목록 선정 심의 결과 <부결>
 - 2020.6월 : 「세계유산 잠정목록 연구지원 국고보조사업」 공모 선정
 - 2022.1월 : 잠정목록 선정 심의 결과 <가결>
 - * 유산의 성격, 명칭, 구역범위(①사역범위, 지형, 경관 고려 ②부도군과 사찰(유적) 연결여부 검토), 비교연구 등에 대해 지속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를 권고함
 - * 전문가 검토를 거쳐 세계유산센터에 잠정목록을 등록하고 그 결과를 본 위원회에 보고할 것
- 이에 위원회 가결 이후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함

다. 추진 개요

- 원고 검토 및 보완
 - (국문) 전문가 검토(○○○, ○○○ / '22.5월)
 - (영문) 전문가 검토(○○○ / '22.7월)
- 주요 검토 의견
 - (국문) 두괄적·명시적 방식으로, 수조기·동아시아 내에서의 선종의 위상·청규 등 주요 부분을 강조하고, 비교연구를 통해 OUV를 선명히 서술
 - (국문) 기 등재된 '산사'와의 비교연구는 신중히 접근하고, 회암사지 유적의 보존 관리와 불교 선종 수행 전통 계승 차원에서 현존하는 회암사와의 연계성을 고려
 - (영문) 국문본의 의미를 분명하게 드러내도록 일부 표현 수정, 의미는 명확 하지만 보다 완곡한 표현의 사용, 건축용어에 대한 검토 필요

라. 향후 계획

- ('22.7월) 잠정목록 등록 (문화재청 → 세계유산센터) * 제출 즉시 등록
- ('22.9월~'23.7월) 우선등록목록 선정을 위한 비교연구 및 학술대회 개최

마. 의결사항

- 접수함

<별첨> 「양주 회암사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록 신청서 1부.

2. 경주역사유적지구 내 황룡사지 남쪽광장 정비 경과 및 계획 보고

가. 보고사항

「경주역사유적지구」 내 황룡사지의 남쪽에 위치한 남쪽광장 정비사업의 경과 및 계획을 보고 드립니다.

나. 보고사유

- 경주 황룡사지 남편에서 너비 50m, 길이 500m로 추정되는 규모의 광장유적이 발굴되었으며, 이에 따라 수립된 정비 사업계획에 대하여 세계유산분과위원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사안임

다. 주요내용

- 부지 복토정비 (B=50m, L=290m, 성토높이 H=1.0m(유구보호층))
- 담장 재현정비
 - 차단담장 설치 L=140m, H=4.0m, 차단담장 유구정비 L=142m, H=0.6m
 - 차면담장 설치 L=9.4m, H=4.0m
- 탐방로 및 조경 정비, 안내판, 휴게벤치 정비

라. 추진 경과

- 2015 ~ 2020 황룡사지 남쪽담장 외곽 발굴조사 (31,166㎡, 광장, 차단·차면 담장 등 확인)
- 2021. 04. 09. 기본계획 중간보고회 및 자문회의
- 2021. 07. 06. 자문회의(대상유적 명칭 등)
- 2021. 08. 27. 자문회의(식재 수종, 배식방법, 규격 등)
- 2021. 09. 02. 기본계획 최종보고회 및 자문회의
- 2021. 12. 17. 자문회의(차단담장 정비)
- 2022. 05. 24. 실시설계 수리기술위원회 심의 (조건부 가결)

- 조경공사 착공 전 수종 선택·배치방식·식재방법 등에 대해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보완하도록 함
- 담장은 시공 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토하도록 함

마. 검토의견

○ 경주시 (사업주체)

-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황룡사지 남쪽담장 외곽 발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발굴조사를 통하여 경주 황룡사지 남쪽 광장과 차단 담장 및 남문외곽에 대한 유적을 파악하였으며, 최근에 확인된 남쪽광장은 폭 50m, 길이 280m를 확인하였음
- 경주 황룡사지 남쪽광장의 최근 발굴된 성과를 바탕으로 관련자료 및 현황 조사를 통해 유적의 성격과 특성을 파악하고, 여러차례 보고회 및 자문회의를 거쳐 내용을 반영하여 정비계획을 마련하였음.

○ 신라왕경 핵심유적복원정비추진단

- 금번 황룡사지 남쪽광장 정비는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종합계획 (2021~2025) 및 2022년 시행계획 상의 사업으로 발굴결과를 토대로 “황룡사지”와 “남쪽광장”의 경계 및 장소성을 부각시키고 동궁과 월지 및 주변 유적(황룡사지 동쪽 및 남쪽의 신라왕경 도시유적)과의 관계를 보여줄 수 있다는 판단임.
- 또한, 현재 황룡사지 측면 진출입 동선을 황룡사 본연의 진입체계인 남쪽 광장을 통한 정면 진출입 동선으로 바로잡아 해당 문화재에 대한 이해를 돕고, 향후 남쪽광장 본연의 기능 회복과 함께 다양한 활용이 가능해져 좀 더 적극적인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이 가능할 수 있다는 판단임.

바. 참고자료 (관계전문가 자문의견)

○ (2021.04.09. / ○○○) - 중간보고회 및 자문회의

- 황룡사지 남쪽이 원래 소폭 도로였으나 8세기말~9세기 광장형 도로로 변화되었을 가능성에 대해 역사적 시대적 상황속에서 재검토를 요함.
- 황룡사는 6C 진흥왕 대 황궁으로서의 국왕의 위상과 위엄을 보여줄 사찰로서 건립. 그러나 8C ~ 9C는 신라말 왕권이 극도로 미약해진 상태에서 이같은 왕의 행차를 위한 광장형 도로 조성은 불가.
- 따라서 황룡사지 남쪽도로는 신라왕경 리방제를 연계시켜 도성구조 규명에 초점을 맞추는게 적절.

○ (2021.04.09. / ○○○) - 중간보고회 및 자문회의

- 황룡사지 남측 발굴조사로 발견된 넓은 공간은 현재 ‘광장형도로’ 또는 ‘남쪽광장’으로 학술대회 개최 및 정비·활용계획 수립중에 있다.
- 특히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은 대부분 해당 유구를 ‘남쪽광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유구의 성격과 기능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선행하여야 복원·정비·활용이 원만하게 이뤄질 것으로 판단된다.

- 화분분석을 이용한 정비방향 설정은 바람직하나, 층위별 분석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황룡사 남측 유구가 조성될 당시 층위와의 적용점을 정비계획 수립 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된다.
 - 남측 유구 성격 규명에 대한 학술대회 개최를 통한 다양한 견해 청취 및 반영의 필요성이 보인다.
- (2021.04.09. / ○○○) - 중간보고회 및 자문회의
 - 광장 혹은 광장형도로의 용어 사용에 대한 검토 필요해 보인다.
 - 전체적인 공간의 분석은 신라왕경내에서의 입지 등을 분석하여야 하며, 사상적 배경, 왕경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음을 토대로 공간 해석이 필요하다.
 - 도출된 해석을 통한 정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현재 정비안 수정 필요)
- (2021.04.09. / ○○○, ○○○) - 중간보고회 및 자문회의
 - 황룡사지 남측권역에 발굴을 통해 넓은 마당공간이 있었음이 확인되어 정비하는 것은 의미가 있어 보인다.
 - 황룡사지 남측의 넓은 마당공간을 둘러싸고 있는 담장이 있어 광장으로 이해할 수는 있으나, 도시의 구조와 주변에 위치한 동궁과 월지와와의 관계성을 고려한 성격 규명이 필요하다.
 - 왕경의 구조와 주변 유적 상황을 고려하여 정비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정비의 범위와 내용은 축소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대상공간이 지닌 성격을 도시적 기능 측면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차단담의 성격과 역할에 대한 검토도 요구된다.
- (2021.04.09. / ○○○) - 중간보고회 및 자문회의
 - 세계유산으로서 황룡사지 남쪽광장의 활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방문객(관광객)의 관리계획(해당 구역의 방문객 수 추정, 수용력 추정 등) 고려가 필요하다.
 - 황룡사지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당시의 속성을 고려한 정비 및 활용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 방문객 관리계획을 근간으로 한 활용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 (2021.04.09. / ○○○) - 중간보고회 및 자문회의
 - 정비계획 수립 시 주변 유적(S1E1지구, 동궁과 월지 추정 동문지 등)과 연계시켜 종합적인 정비계획 수립이 필요해 보인다.
- (2021.04.09. / ○○○) - 중간보고회 및 자문회의
 - 남문지, 남쪽광장 발굴결과에 대한 정밀 검토가 필요하다.
 - 남쪽광장에서 발견된 유구들에 대한 성격(기능)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정비계획이 일부 과함이 있어 보인다.(유구보호차원에서 정비가 적절해 보임)

○ (2021.07.06. / ○○○) - 자문회의

- 황룡사지 남쪽광장 조성시기를 700년경으로 비정하게 되면 동궁과 월지와 의 연계를 통해, 왕의 행차경로로서의 광장에 대한 심도깊은 고증을 통해 역사적 스토리를 광장의 정비 콘텐츠로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황룡사 임시주차장 일부를 철거하고 동해남부선 남편으로 주차장 확장하는 안은 단기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2021.07.06. / ○○○) - 자문회의

- 황룡사 부지 남쪽 '광장'이라는 용어 사용은 타당하다고 사료된다.(현재로서는 대안이 없으므로 잠정적으로 사용해도 좋을 듯함)
- 다만 이 '광장'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새로운 용어가 창출된다면 향후 그 용어를 쓰거나 아니면 '광장'으로 고착될 것으로 보여진다.
- 화분분석 결과 소나무, 참나무, 느릅나무, 느티나무 등의 꽃가루가 확인되어 느티나무를 이동식 플랜트에 식재하여 그늘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이의는 없으나, 이동식 플랜트 식재수준으로 느티나무의 적절성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 (2021.07.06. / ○○○) - 자문회의

- 광장이 오픈형이나, 왕경 고유의 폐쇄적이냐에 대한 심층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 정비의 과정에서 이동식플랜트에 식재된 교목라인이 광장 이미지와 부합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 담장의 재현 및 유구복토 후 재현하는 것이 식재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 (2021.07.06. / ○○○) - 자문회의

- 현재까지조사 연구된 자료를 중심으로 황룡사 남측광장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크게 변형시키는 내용 없이 정리하는 차원에서 계획되어 문제가 없어 보인다
- 다만, 주변 문화재 및 유적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고려하여 광장의 성격 및 차단담장의 용도, 형태, 높이 등을 고찰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기타 주변의 발굴 등을 통한 정비계획 방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2021.08.27. / ○○○) - 자문회의

- 광장 느티나무 식재와 관련하여 대형 플랜트박스의 느티나무 규격은 근원직경(R)20~25cm 정도로 병렬식재하여 방문자들에게 녹음을 제공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남문지 주변 소나무 식재와 관련하여, 예산이 가능하다면 대형 소형소나무를 식재하도록 하며, 대칭식재에 대한 이견은 없다. 또한 소나무+진달래 식재패턴은 자연상태에서 나타나는 유형으로 문제없다고 판단된다.

○ (2021.08.27. / ○○○) - 자문회의

- 광장 내 이동식플랜트에 식재될 수종은 느티나무가 적절하며, 가로수 형태로 식재하여 관람객들에게 그늘 제공을 권장한다.
- 느티나무 규격으로는 흉고직경(B)15~20cm 정도의 대형목을 권장하며, 유구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이동식플랜트에 식재하여 가역성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고 보여진다.
- 배식방법은 광장 남쪽 담장에서 10m 이격하며, 식재간격은 10m씩 2열로 어긋나게 식재하여 그늘이 있는 보행로 조성이 좋다고 보여진다.
- 광장의 나머지 공간은 마사토로 포장하여 문화유적 역사경관의 개방감을 주고, 문화행사 시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021.09.02. / ○○○) - 최종보고회 및 자문회의

- 광장 정비의 주된 목적, 방향설정이 우선되어야 하며, 광장자체를 주목하기 보다 신라의 역사, 문화적 성격, 특성 등을 드러내는데 목적이 있어야 한다.
- 광장은 동궁과 월지, 황룡사, 분황사, 구황동 원지 전체를 아우르는 신라 주요 영역이 중심적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비해야 향후 활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왕의 행차길에 대해 별도의 포장을 도입하는 것이 기능 연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 (2021.09.02. / ○○○) - 최종보고회 및 자문회의

- 황룡사의 광장인지, 동궁의 광장인지에 대한 실체 확인 필요가 있다. 동궁의 동문에 연결하기 위해 계획되었다면 S1E1지구와의 연결부(황룡사 동편)가 현재와 같이 차단된 형태인지, 후대 축소된 것인지 규명이 필요하다.
- 광장을 통한 황룡사의 진입동선을 수복할 수 있도록 계획하도록 한다.
- 광장에 도입된 식재계획은 미발굴지에 공원화 또는 주차장 등에 식재하여 별도 휴게공간을 조성하도록 한다.
- 경사지의 용도규정이 필요해 보이며, 광장 활용에서 광장유구를 활용할 것인지, 상부 복토하여 활용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활용 제시할 필요가 있다.

○ (2021.09.02. / ○○○) - 최종보고회 및 자문회의

- 남쪽광장 레벨 설정 시, 현재 조성되어 있는 도로와 주변 유구와의 레벨로 인해 단차가 생길 수 있다.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세밀한 계획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 남쪽광장 과업범위 외 주변 문화재 또는 환경이 함께 고려될 수 있도록 정비영역을 확대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 안내판 등의 시설 설치 시 문화재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침해하지 않는 곳에 설치하며, 그 내용과 설치하기 위한 기초 등을 고려하여 제시하도록 한다.
- 광장부 식재계획은 황룡사와 영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일렬 식재로 검토하면 좋을 것 같다.

○ (2021.09.02. / ○○○) - 최종보고회 및 자문회의

- 명칭에서 남쪽이라는 방향성 필요 여부에 대한 재고로 '황룡사지 광장'으로 대표성을 부각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호국사찰인 황룡사의 의미 부여가 미흡하다. 황룡사 유적의 의미를 강화하고 광장으로의 기능을 고려한 동선과 식재, 시설물 계획을 통한 경관 회복을 추천한다.
- 대상지 안내판의 목적에 따른 일관된 정비와 구성이 필요하다.
- 차단담장의 구현방법(실물 복원, 실사 접목 중첩 시뮬레이션 판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 황룡사지 광장의 장소성을 회복하는 행차 재현 등은 바람직하나, 프로그램에 관련 기록(연등행사 등)을 연계한 정통성에 입각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 현장 중심의 프로그램 외 현장성이 결여될 경우(위드코로나 시행 등)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선 다양한 채널로 홍보하는 프로그램 개발을 추천한다.

○ (2021.12.17. / ○○○, ○○○) - 자문회의

- 황룡사지 남쪽광장의 차단담장 건립과 관련하여, 담장의 규모 및 유형은 담장 유구 및 관련 자료와 사례(일본 등)를 바탕으로 구현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담장의 높이 등은 관련 자료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바탕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인다.
- 정비계획상 2단계 추진예정인 차단담장의 일부구간을 우선적으로 건립하는 것은 의미가 있어보이며, 건립의 범위는 황룡사 남문지에서의 경관을 고려하여 계획할 필요가 있다.

사. 의결사항

○ 보류함

- 왕경핵심지구 내 행해지는 사업에 대한 종합적 계획을, 세계유산적 관점에서의 보존과 연계하여 검토하고, 황룡사지 남쪽광장 수목 및 담장 재현의 세계유산적 가치 영향에 대한 자료를 보완하여 검토안건으로 부의할 것
- 유산구역 내 행해지는 행위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보고가 필요한 지에 대해 검토할 것